

# 여성독자, 여성필자, 여성취향의 책문화

## 과거지향적·비현실적 서정에 치우쳐... 일회적 카타르시스로 전략할 우려

박덕규

문학평론가·소설가

극적인 경험이나 견해의 소유자일 것. 유명인이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일 것. 여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일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필자를 만나서 그 특징들을 선전 수단으로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출판업자로서 빨리 대성할 수 있다. 속단 말라고? 천만에 말씀. 지금 당장 신문 출판란을 펼쳐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를 살펴보자. 일부 실용서적(이것도 컴퓨터나 영어 공부하는 책이 대부분이다)을 제외하면 나머지 책들은 모두 위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필자의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 여성독자에 의해 좌우

어쩌면 위의 세 가지 요소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꿈꾸는 출판업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정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바꾸겠다.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는 필자의 책이라면 많이 팔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책을 내라. 가령, 어정쩡한 유명인을 내세워서 큰 장사할 생각은 버려라. 여자들이 봐서 따분해할 책은 아예 한정 부수만 내라. 그러면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겠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결과론으로 추적해보자. 다시 베스트셀러 명부를 뒤적거려 보는 게 현명하겠다. 극히 일부 예외를 빼면 그들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기성 문인이고 아니고 할 것 없이 대부분 여자들이다.

그들 여성 작가들은 그 자신 극적인 인생 경험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극적인 견해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령, 수천만원 상금의 장편소설 현상 공모에 연이어 당선했다거나, 자랄 때의 무지무지한 가난이나 불행을 견뎌 마침내 소설가로 성공했다거나,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참으로 그럴 듯하게 그렸다가, 외국에 가서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적인 한국인으로 부상했거나, 뻔히 있는 일을 “그것은 없다!”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거나 해서 드디어 세인의 관심을 끄는 주역으로 등장한 인물이다.

대부분의 여성필자가

주요 소재로 삼는 과거사가

과연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의미있는 견해를

던질까. 또 그들의

입지전적 삶은

관심과 선망의 대상,

혹은 일회적이고

화제의 정보 차원으로

머무는 게 아닐까.

따라서 그들은 지금까지 세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신인이거나 아니면 오래 전에 그와 유사한 경로로 이미 명성을 얻은 바 있는 유명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글은 사실, 많은 사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마침내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 추리 과정을 택하지 않고, 작고 특별한 어떤 사실에서 곧바로 분명한 결론에 이르는 수필적 경향이 강한 편이거나, 아니면 감성에 호소하는 서정적 운치나 사랑의 감정을 표나게 드러내는 이야기기기가 보통이다.

### 여성작가들이 출판문화의 중심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이전에, 이런 일을 특별히 이상스럽게 여긴다거나 그들 여성 필자들의 글을 공연히 비난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왜냐하면, 위의 조건과는 다른 필자들의 책들이 주로 잘 팔리던 시절이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그때가 문화적 환경이 우월하게 조성된 시기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이즈음에서 여성 작가들이 한국의 출판 문화를 창조하는 핵심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자칫 빠뜨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들 대부분의 필자가 주요 소재로 삼고 있는 과거사가 과연 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나름의 의미 있는 견해로 여겨질 만한 것인가? 가령, 소설의 경우 자전적인 소설이니, 성장기 소설이니, 후일담 소설이



이즈음 책문화의 무게중심은 여성저작자와 여성독자에 의해 좌우된다.

니, 순정소설이니 하는 데 치우쳐 있을 때, 그 각각의 개성이야 존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문학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징후를 짚어내는 안목을 배우곤 했던 인류의 오랜 문화 전통은 어디 가서 이어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는, 그들의 입지전적인 삶이 일반인들에게 때로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그 극적인 이력과 내용은 다만 현실적인 기반과는 유리된 채 이루어지는 갑작스런 신봉적 상승으로 비치거나, 또는 다만 일회적 화제로 전략할 우려마저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들의 의미 있는 체험과 견해가 다만 화제주의적인 정보 차원으로만 머문다면, 좋아하는 책이 내면의 양식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마는 아쉬움의 탄성을 범문화적으로 내질러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여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란 어떤 것일까. 하루만의 위안은 혹시 아닐까. 현실적인 삶을 위한 지혜를 얻는 책보다 다만 과거지향적이고 비현실적인 서정과 추억의 공간으로, 또는 현실에서의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던지는 이야기로 유도하는 책 속에 젖어 있는 문화인이 대부분일 때 과연 우리의 출판문화는 어떤 바람직한 것을 창출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 새로운 책문화시대 열 때

다시 말하거니와, 이 문제는 그들 개개의 작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식으

로 말해질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하는 동안 과연 그들만을 주로 성장시킨 우리 문화 안에 무슨 문제가 없었던가에 대해 화살을 돌려야 할 차례다.

그동안 우리들의 역사와 인생에서 참으로 중대한 공통과제를 문화와 책의 중심과제로 내세워야 했던 문화풍토가 결국 바로 그런 억압에 시달려온 보편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이면서 보다 편하고 보다 쉽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연들이 너무 반갑게 다가간 것이다. 흔히 말하던 거대담론의 시대가 갔다는 사실을 많은 그럴싸한 지식인들이 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동안 거대담론의 문화 속에서 소외되어 있던 대표적인 계층, 즉 여성이나 아마추어 문필가, 드러나지 않던 무수한 잠재적 문필가들이, 전문적이고 중심적이던 지면을 통하지도 않고 다양한 등단 경로를 통해 드디어는 문화의 중심에 서버렸다.

물론 그들 스스로도 다시 그 중심에서 아득히 먼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야 할 운명을 고스란히 안고서, 옛날 문화 권력을 행세하던 분위기에서 벗어 지내다가 이제 막 드러진 세상을 깨닫고 새로이 홀로 중심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문필가들과 뒤죽박죽으로 어울리면서 새로운 책문화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이해해두자. ❖